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영토 내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에 있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사업국(UNRWA)이 운영하는 자오우니 학교에 피난해 있는 아이들이 이스라엘의 폭격에 반응하고 있다.

# 이스라엘 가자지구 학교 폭격 최소 16명 사망·50명 부상

“피란민 7천명 몰린 곳...사망자 대다수 여성·어린이·노인”  
하마스 “집단 말살”...이스라엘 “테러범 표적 공격” 항변

이스라엘이 지난 6일(현지시간) 수천명의 피란민이 몰려 있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유엔 운영 학교를 폭격해 최소 16명이 숨지고 50명 이상이 다쳤다고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혔다.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끄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의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 학교가 공격받아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가자지구 정부 공보실은 당시 학교에는 약 7천명이 대피하고 있었다며 사망자 대다수는 어린이와 여성, 노인이라고 주장했다.

현지 당국은 부상자의 상당수가 위독한 상태여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미사일이 떨어진 학교에 있었다는 사마 아부 암사라는 여성은 일부

아이들은 교실에서 쿠란을 읽고 있다가 죽었다고 AFP 통신에 전했다.

이 여성은 “파편이 교실 안에 있는 나를 향해 날아왔고 아이들이 다쳤다”며 “이스라엘이 경고 없이 학교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라고 말했다.

하마스는 이번 공습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제노사이드(소수집단 말살) 전쟁의 일환으로 범죄자인 적이 저지른 새로운 학살이자 범죄”라고 비난했다.

반면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UNRWA 학교 지역의 구조물에서 활동하는 여러 테러범을 공격했다”며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미리 취했다고 밝혔다.

유엔 학교를 비롯해 민간인이 몰려 있는 시설이 잇따라 공격받으면서 가자지구에서 안전한 곳이 없다는 우려

와 함께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대한 비판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UNRWA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후 가자지구에 있는 UNRWA 시설의 절반 이상이 공격을 받았으며 이중 피란처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AFP 통신에 “그 결과 이들 시설에 대피해 있던 최소 500명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날 가자지구 주요 8개 난민촌 가운데 하나인 알누세이라트 난민촌의 한 주택이 공습받아 최소 10명이 숨지고 많은 사람이 다쳤다고 현지 의료진이 전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팔레스타인인 최소 29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또 가자지구 전쟁 이후 총 3만8천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 사망자의 최소 3분의1이 전투원이라며 가자지구에서 전사한 자국 군인은 323명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아르헨티나, 110년 만에 소고기 소비 ‘최저’

‘경제난’ 영향...닭·돼지 등 전체 육류 소비량도 감소

경제난에 시달리는 아르헨티나에서 올해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이 1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 6일(현지시간) 라나시온과 클라린 등 현지 언론매체 보도를 보면 최근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증권거래소는 올해 아르헨티나 1인당 소고기 평균 소비량을 44.8kg으로 전망했다.

이는 아르헨티나에서 소고기 소비량을 기록하기 시작한 1914년 이후 1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가 될 수 있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전체 기간 평균 소비량(72.9kg)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소고기의 나라’라고 불리는 아르헨티나에서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은 미국(38kg), 호주(27kg), 칠레(26kg)를 웃돌지만, 20세기 후반부터는 주민들이 식도락과 웰빙 트렌드 속에 닭고기나 돼지고기 등 다른 단백질 공급원에도 눈을 돌리는 추세라고 한다.

여기에 더해 300%에 육박하는 연간 인플레이션 등 극심한 경제 위기 속에 지갑이 얇아진 주민들이 소고기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실제 최근에는 “소고기를 언제 사서 먹었는지 기억이 없다. 최저 연금을 받기 때문에 약을 사고 공과금을 내고 나

면 빵으로 연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70대 은퇴자 방송 인터뷰가 현지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아르헨티나의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를 포함한 올해 1인당 육류 소비량은 105.7kg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대비 9% 정도 낮은 수준이다.

이는 2011년 이후 1인당 최저 육류 소비량을 뜻하며, 지난 10년 평균이었던 112.8kg보다 7kg 낮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로사리오 증권거래소는 관련 보고서에서 “경제난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닭고기를 선호하는 상황”이라며 “기록상 처음으로 소고기와 닭고기 섭취량이 비슷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 폭염 속 세 아이 차에 두고 쇼핑간 모 체포

미국에서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 자녀를 차 안에 약 1시간 동안 방치하고 쇼핑을 간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6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미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어른 없이 3명의 아이가 울고 있는 차량이 발견됐다. 당시 샌안토니오 지역의 기온은 37도 안팎이었다.

지난가던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경

찰에 신고했고, 즉시 아이들을 구조했다. 다행히 차량 문은 잠금장치가 풀려 있었다. 아이들은 1개월, 2살, 4살이었다. 경찰은 인근 가게에 들어가 쇼핑하던 아이들 엄마를 체포해 아동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은 “엄마는 얼마나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는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보면 아이들은 약 50분간 차안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립기상청 차트에 따르면 외부 온도가 섭씨 33도인 차 안 온도는 1시간이 지나면 53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아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다행히 건강에 큰 이상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사망 데이터를 기록하는 키즈엔카세이프티에 따르면 올해 뜨거운 자동차에서 사망한 어린이는 최소 7명에 달한다. 1990년 이후로는 전국적으로 1천90명 이상의 어린이가 뜨거운 차량에 방치돼 목숨을 잃었다. /연합뉴스

# 타이태닉·아바타 제작자 존 랜도 별세

영화 타이태닉과 아바타 시리즈의 제작자인 존 랜도(63·사진)가 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났다고 AP통신과 미국 연예매체 버라이어티 등이 지난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랜도는 1960년 7월 미국 뉴욕에서 영화제작자인 엘리와 에디 랜도의 아들로 태어났다.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에서 영화학을 공부한 그는 1980년대부터 영화관에 뛰어들어 프로덕션 매니저 등으로 일했다.

29세에 20세기폭스의 장편영화 총괄 부사장으로 임명돼 ‘나홀로 집에’, ‘미세스 다웃파이어’, ‘트루 라이즈’ 등의 히트작의 제작을 감독했고, 이 과정에서 제임스 캐머런과 인연을 맺었다.

랜도는 캐머런과 함께 1997년 전 세계



박스오피스에서 사상 처음으로 수익 10억달러를 돌파한 영화 타이태닉을 제작했다.

타이태닉은 아카데미상 작품상과 감독상 등 11개 부문을 휩쓸었다.

랜도는 이후에도 캐머런과 지속적으로 일하며 라이프스톤 엔터테인먼트의 최고운영책임자(COO)가 됐고, 2009년에는 아바타로 흥행 신화를 새로 썼다.

디즈니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앨런 버그먼 공동 회장은 “존의 탁월한 재능과 열정은 잊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스크린에서 되살려냈으며 영화산업에 지울 수 없는 큰 공로를 남겼다”고 그를 추모했다. /연합뉴스

‘한·일·인·태’ 나토회의 11일 검토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4개국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맞춰 오는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함께 5개국 정상회의를 처음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일본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에 정상회의를 요청했다고 한다.

요미우리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윤석열 한국 대통령 등이 참석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데 뜻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일본과 나토가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첫 국제회의를 도쿄에서 열기로 합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53년 기술력의 집합체**  
우라칸 SH-100 출시!  
우라칸 SH-200 출시!

(사)대한파크골프협회 1호 인증업체 썬아이엔디 와 파크골프채 수제작 전문 기업 에스유엔을 보유한 브랜드

## 썬파크골프



**NEW** 우라칸 SH-1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우라칸 SH-2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블리스 GOLD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마스터즈 CH-15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스파이럴 숄자 특허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마스터즈 CH-20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3K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스파이럴 가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영무SP sports**

문의: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